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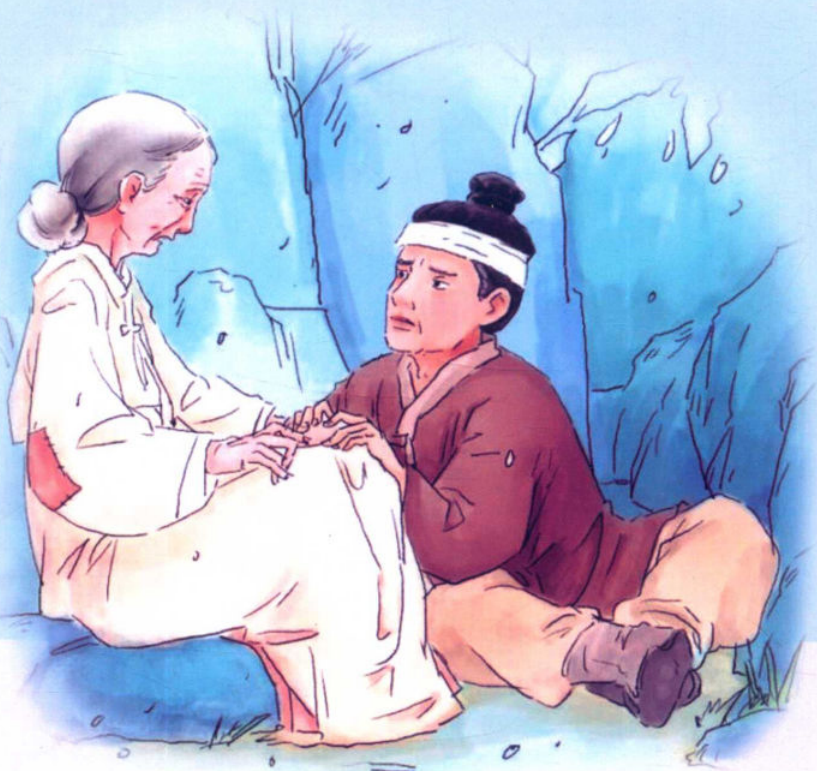


민족문자출판물특별보조프로젝트

중국조선족민간이야기총서

효 자

리용득 수집정리



요녕민족출판사

민족문자출판물특별보조프로젝트

중국조선족민간이야기총서

효 자

리용득 수집정리



요녕민족출판사

© 李龙得 2018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孝子：朝鲜文 / 李龙得收集整理. —沈阳：辽宁民族出版社，2018.12

(中国朝鲜族民间故事丛书)

ISBN 978-7-5497-1945-7

I. ①孝… II. ①李… III. ①朝鲜族—民间故事—作品集—中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277.3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8) 第 250279 号

孝子

XIAOZI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 刷 者：辽宁鼎籍数码科技有限公司

幅 面 尺 寸：170mm×240mm

印 张：15

字 数：250千字

印 数：1-1000

出 版 时 间：2018年12月第1版

印 刷 时 间：2018年12月第1次印刷

责 任 编 辑：金顺玉

封 面 设 计：杜 江

责 任 校 对：边京爱

标准书号：ISBN 978-7-5497-1945-7

定 价：30.00元

网 址：www.lnmzcs.com

邮购热线：024-23284335

淘宝网店：<http://lnmz2013.taobao.com>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联系电话：024-23284340



차례

효성편

효성으로 극죄를 사면	1
호박금	7
홍매화	12
설에도 부모를 모르다니	17
도적질한 효자	19
시부모 공경해야 복이 쏟아진다	21
효 자 (1)	23
효 자 (2)	25
참효자	27
시부모를 잘 모시는 비결	28
남산너머 호불애비	29
셋째며느리의 지혜	31
애를 묻어죽이는 효자	33
효자와 개구리	35
안해에게 절해라	37
‘경상감사 평양감사’	38
되살아난 아들	39
효자는 하늘이 알아본다	41

2 효자

배 안으로 훌쩍 뛰어든 잉어 두마리	43
효성과 단정으로 복받은 처녀.....	45
로인을 공경해 큰 부자로 된 젊은 부부.....	47
효자는 짐승도 해치지 않는다.....	50
범에게 시아버지 대신 아들을 내주어 복받은 며느리	52

믿음과 신용편

신 용	54
친구사이	61
담배진을 마신 송대감	66

교양편

어머님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	68
슬기를 가르친 어머니	73
딸아, 어서 범을 찾아가거라	75
오늘 밤은 밖에서 새우거라	77
종아리채와 휘장	79
동량지재를 엄히 단속한 황정승.....	81
될성부른 나물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83
지필묵값을 치른 황희정승	86
안해가 죽인 '손님'.....	88
황정승이 조카에게 써준 글	92
한 획을 긋지 않아 락방되다	93
아버지의 교훈을 거울로 삼아.....	95
아들며느리의 종아리를 후려친 로부.....	97
아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인 정승.....	99
딸의 혼비가 전지가옥으로	100
김삿갓이 훈장을 고르다.....	102
높은 벼슬을 사절한 장군.....	104

날아온 치마와 바지 보따리	105
외모와 안속	107
당신이 바로 사돈이기에	109
시비에 대바른 명재상	110
미녀의 유혹을 물리친 송반	116
하루밤 실수를 큰 교훈 삼아	120
국사를 생각해 애처를 버리다	124
곤장 한매	126
말머리를 베이다	135
간첩 아버지를 고발한 소녀	137
판서를 깨우쳐준 서리	142
방어사로 된 시골농부	143
원수를 장인으로	150

과감과 결단편

권세와 과감히 맞선 흥흥	165
점쟁이 아닌 점쟁이	168
무성동자	177
줄부와 장부	188
초막에서 만난 유부녀	192
기생의 유혹을 물리친 유당	197

근면과 성실편

술이 없어지는 술잔	201
가득한 두 농부	209
판관이 된 나무장사군	216
부엌 밑 금단지	222
양자로 된 최서방	227
명창으로 된 우평숙	233

효성편



효성으로 극죄를 사면

리조 영조 때 일이었다. 주부님 다음날 흥분 흥분한 채 영조께 보고를 올리자 영조는 그 해 따라 그 무슨 놈의 수틀린 심술궂은 작간인지 전국 팔도가 전무후무한 가물로 인하여 어디라 없이 논과 밭 모두가 적토화되고 있었다.

하여 전례없는 대홍이 들게 되었다.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자면 쌀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했다.”

이렇게 작심한 영조임금은 우선 금주령을 내렸다.

아울러 곡술을 은밀히 만들어 파는 자가 나지기만 하면 일률로 극형에 처한다는 엄명을 내렸다.

바로 이런 때 함경도 남병사로 있는 윤구연이란 자가 이런 금주령도 공공연히 무시하고

얼씨구 좋다, 저절씨구

무엇무엇해도 아니 마시진 못하겠네 ...

이렇게 술타령으로 질탕한 나날을 보내었다.

“에익, 고약한지고!”

이에 나라에선 즉시 그를 잡아올려 목을 베는 한편 그 시체를 남문 밖에 걸어 모든 사람들을 징계케 했다.

이러니 온 나라가 어찌 금주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헌데 이 얼마 뒤 서울 안에 술을 밀조해 파는 자 있다는 말이 떠돌았다.

영조임금은 임직선전관 유진항을 입시케 하였다.

영조임금은 그에게 시퍼런 상방검 한자루를 내주면서 칙지를 내렸다.

“짐이 듣건대 요즘 동대문 근처 락산동 사는 어느 집에서 언감생심 사사로이 술을 빚어 팔고 있다니 이를 즉각 조사해 밝히라. 사실이 그러거든 두말없이 그 장본인의 목을 단칼에 베여가지고 올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인은 그 칼로 경의 목을 썩둑 벨 것이로다. 하되 이 일을 3일 안으로 복명하라.”

선전관 유진항은 명령 받은 그 날부터 주야불문 동촌을 더듬어 배회했다.

허나 아무리 내리훑고 올리훑고 서캐 훑듯 했으나 양주업자의 자취를 도무지 찾아낼 도리가 없었다.

“아, 이 일을 어이하나?”

그 이틀 되는 날 아침까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진항은 마침내 무릎을 탁 쳤다.

그는 즉시 익히 아는, 리화정 부근에 사는 기생집을 찾아갔다.

깊은 밤중이 되자 유진항은 갑자기 금방 내죽겠노라며 자리에서 대굴 대굴 구울렀다.

“나으리, 나으리, 이게 웬 일이세요?”

곁에 모시고 자던 기생이 돌연한 일에 텐겁하여 물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아니 나으리, 도대체 어디가 편찮아 그러세요?!”

“아이고 나에겐 원래 담적이란 무서운 고질병이 있다네. 그런데 이 병은 한번 급기 발작이 되면 온몸이 막 뒤틀려 이렇게 몸부림만 친다네.”

“그럼 이런 무서운 병엔 그 무슨 신통한 약이 없나요?”

“약이야 왜 없겠나만…”

“아니 무슨 약인데요?”

“하긴 이 놈의 몸쓸병이 발작될 때마다 곡주 몇잔만 딱 마시면 되지만…”

“술어요?”

술이란 말에 기생은 기겁하게 놀랐다.

지금은 아무리 한다하는 기생집에도 술이 없는 지가 꽤 오랫동안 때문이요, 술은 하늘의 별따기였던 때문이다.

“그렇네. 바로 술이지. 그래 자네 방법을 대여 사람을 좀 살려줄 수 없겠나?”

유진항은 진심으로 구걸했다.

그러자 한참 생각을 달리던 기생은 드디어 결심한 듯 결연히 말했다.

“나으리, 조금만 참으세요. 아무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없겠습니까?”

기생은 술병 하나를 치마자락 밑에 살짝 감추고 밖으로 종종 나갔다.

그러자 유진항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남몰래 그 뒤를 밟아나섰다…

기생이 술을 떠오자 유진항은 그것을 몇잔 마시고 “아, 덕분에 내 인젠 살았다.” 하며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입가를 슬쩍 닦았다.

그로부터 얼마 쯤 지나 유진항은 아까 기생이 들어갔던 그 집으로 슬쩍 들어갔다.

그 집 사랑엔 20대의 수목이 수려한 청년 하나가 단정히 앉아 하늘 천따지를 읽고 있었다.

“그대가 이 집 주인인가?”

“예, 그렇소이다. 그런데 손님은 뉘시오?”

“나로 말하면 나라의 선전관 유진향이요. 듣건대 그대네 집에서 사사 로이 곡술을 만들어 판다는데 그게 실말인고?”

그러자 그 청년은 대뜸 머리를 푹 떨구고 납작 꿇어엎드려 대죄하는 태도를 보이였다.

“그래 그대는 올해가 전례없는 대흉년 해임을 모르시고, 그래서 지금 나라 임금께서도 수라에 술을 폐하셨거늘 또 언녕 금주령을 내리고 술의 양조, 술의 밀조를 엄격히 금하고 계신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술을 밀조하여 파니 이는 크나큰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나아가선 틀림없는 반역행위라 나는 바로 임금님의 지엄하신 령을 받고 그대의 머리를 베러 온 것이로다!”

그 말에 청년은 대경실색 방성통곡을 놓았다.

“집안에 로모가 계신데다 기한에 쪼들려 차마 그저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고로 위법행위인 줄 변연히 알면서도 하루 한되 쌀이 되게끔 몇잔의 술을 빚어팔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량의 술이라 해도 나라 백성된 자로서 감히 국금을 범하고 어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내 로모께 고별인사나 여쭙고 죽고자 하오니 이것만 허락해주옵소서.”

“얼른 들어갔다 나오라!”

아무리 어명이 서리발 같아도 부모를 모신 유진향으로서도 이 청년의 애원을 밀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청년이 본채로 들어가자마자 이번엔 녀인의 우는 소리 진동하더니 두 눈이 실명된 70여세의 늙은 로모와 젊은 안해가 동시에 뛰쳐나왔다.

“죽을죄를 범하였나이다. 하지만 법을 어긴 장본인은 내 아들이 아니고 이 로파이오니 저의 목을 잘라주소서. 이 나먹은 늙은 것이 여태 죽지 않고 살아있기로 내 아들은 이 늙은 것에게 쌀알이나 먹이겠다고 그런 일을 자칭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 주책없는 것이 일찍 죽거나 했더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나이까? 그러니 나으리님께서선 선심 베푸시여 이 늙은 것의 목을 썩뚝 베여가주소서.”

그러자 젊은 안해 역시 나서며 “나으리님, 사실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술을 빚자고 꼬드긴 장본인은 이 계집이오니 두 말씀 듣지 마시고 이 계집의 목부터 잘라주소시오.”

“아니올시다. 제 나이 인제는 20, 한 가정의 호주로서 제가 모든 일에 주장을 했사온즉 어서 바빠 저의 목을 잘라가지고 가주십시오.” 라고 했다. 세 식구의 이런 애절한 언행에 유진항은 무한히 감동되었다.

“아아, 국법이 아무리 무섭다 한들 내 어이 이런 사람들을 참할 수 있으랴? 차라리 이 칼에 내가 죽으려다. 일단 그대네 집에 와본즉 그대의 집 사정이 나로 하여금 차마 살인을 못하게 하오니 차라리 내가 대신 죽는 게 마땅하다.”

유진항은 비장한 결심을 내리며 자결의 칼을 빼들었다.

그러자 이 집 아들, 며느리, 로모가 와락 달려들어 그 칼을 빼앗으며 “선전관님, 이게 웬 일이십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일에 선전관님이 대신하시다니?”

그러자 유진항은 막무가내 생각을 고치며 그 선비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좋게, 만일 당신을 죽이면 무엇보다 로인님께서 더 살기를 원치 않고 목숨을 저버릴 것이요, 자네 안해 역시 죽든지 개가하든지 할 것이라 결국 이 집은 조만간에 전멸하고 말겠으니 내 그대로 돌아가 내 목을 상감께 내놓겠소. 그러나 다신 술을 빙지 말라!”

그리고 분연히 회궁하여 돌아왔다.

그 다음날이었다.

유진항은 대궐로 들어가 영조임금의 하명을 가다리고 있었다.

“락산동으로 내려가 과인이 말한 밀조자를 조사해 보았는고?” 임금의 물음이였다.

“예, 주야없이 입문해보았으나 그런 자가 종시 발견되지 않았나이다. 신은 지엄하신 분부 제대로 시행치 못했사오니 이 칼로 신의 목부터 잘라 주옵소서.”

유진항의 말에 임금은 어이없다는 듯 한동안 말없이 천정을 쳐다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하긴 처음의 령 대로 하면 경을 당장 참형에 붙일 것이로되 경이 그렇듯 신고해도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데야 어이 하겠나.”

“상감마마, 성은이 지극하오이다. 이제 다시 그런 자 나진다면 서슴없이 스스로 저의 목을 잘라 상감께 올리겠나이다.”

“좋네.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긴다면야 그에서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러면서 영조임금은 유진항을 용서해주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다.

영조임금은 다시 유진항을 조용히 불렀다.

“그래 과연 전일에 락산동에서 밀주자를 못 알아냈더라 말이고?”

임금이 뜻밖에도 재추궁하는지라 유진항은 생각에 아마도 임금께서는 자기의 처사소행을 이미 알고 있는 추궁일 것이라 납작 꿇어엎드려 전날에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그대로 기이함이 없이 이실직고했다.

그러면서 재삼재오 죄를 청했다.

“오오, 그것은 전적으로 안맹하신 로모님을 위해 한 젊은 아들의 가륙한 소행이었던 말이지?”

“대왕마마, 그런 것으로 아뢰옵니다.”

그러자 영조임금은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자고로부터 효중에도 부모님에 대한 효가 가장 으뜸이라 일렀거늘 그 가륙한 효행을 어이 죄로 삼아 문책하리오. 그러니 결국 내가 진 것으로 하고 너는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로모에 대한 크나큰 효성으로 술을 가만히 만들어 판 젊은이는 그 극죄를 사면받게 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 일설에는 유진항이 영조임금의 령을 어기고 그 효성한 젊은이를 고발하지 않은 탓으로 제주도에 추방되어 쓸쓸하고 적막한 귀양살이를 했다 하기도 하나 향간 대다수 설에는 유진항도, 그 양주 밀매업자 청년도 모두 그 죄를 사면받았다고 한다.

필자는 그 후설을 택해 이 글을 정리했음을 일러두는 바이다.

호박김

옛날옛적 어느 한 시골에 몹시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 부부는 손우로는 회갑을 넘기신 아버지를 모시고 슬하에는 이제 겨우 네살에 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근근득득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은 날마다 나무를 해서 팔고 안해는 려염집 샅바느질과 샅방아를 찧어 그날그날을 겨우 호구해가고 있는 극난한 처지였다.

아무리 로심초사하고 로근로골로 일해야 네식구 항시 배불리 먹을 도리가 없었다.

하여 그들 부부는 이른새벽에 일하러 나갈 때면 자기들이 덜 먹고 남긴 밥그릇을 아버지 방에 따로 갖다 놓으며

“아버지, 저 놈이 밖에 놀러 나갔을 때 가만히 요기를 하십시오.”라고 당부드리곤 하였다.

그러나 손자를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는 늘 그 밥을 손자녀석에게 먹고 아들과 며느리 돌아오면 의례 오늘도 그 밥을 자기가 아주 잘 먹었다고 밝은 얼굴을 짓곤 하였다.

이렇게 지나가던 어느 가을날이었다.

그날 따라 아들이 산으로 가서 한창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먹장구름이 퍼지더니 소나기가 짹짹 무섭게 쏟아져 내렸다.

하여 아들은 급급히 집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보니 어린 것이 없는지라 아마 이웃집에 가서 놀겠거니 생각하고, 마침 이런 때 아버지에게 얼른 찬밥을 데워드려야겠다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어린 아들놈이 아버지 뚝으로 숨겨둔 밥을 가만히

훔쳐먹고 있지 않겠는가?

화가 천둥같이 치솟은 아들은 대뜸 어린 것의 먹살을 거머쥐고 갈호 같이 호령을 쳤다.

“애, 이 놈아! 넌 왜 할아버지 진지를 훔쳐먹는 거냐?!”

그러나 아들애놈은 조금도 겁기가 없이 또 의례 먹을 것을 먹는데 어쨌느냐고 자신만만 이렇게 대꾸했다.

“훔쳐먹긴 누가 훔쳐먹어요? 언제나 이맘 때면 할아버지가 먹으라고 해서 날마다 이렇게 먹군 하는데…”

“그게 정말이냐?”

“정말 아니구요!”

오,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가 집이 비는 날마다 자기들이 남겨둔 밥을 고스란히 손자에게 다 먹인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때 밖에 나가셨던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아버지, 이게 웬 일이십니까?”

“얘야, 그래 나살이나 먹은 것이 좀 굶은들 일있겠느냐? 하지만 어찌 이 어린 것을 굶길 수가 있단 말이나?”

“아, 아버지도 참!”

바로 그날 깊은 밤, 옷방의 아버지도 깊은 잠에 드시고 곁의 어린 것도 썩썩 자고 있었다.

바로 그 때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던 아들은 안해를 흔들며 깨웠다.

“여보, 여보!”

“왜 그러세요?”

잠기를 떨지 못한 안해의 대답이다.

“여보, 급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얼른 잠간 밖으로 나가지요.”

“아이참!”

안해는 급급히 옷을 주어입고 남편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보, 우리 저 철부지 애놈을 없애버리지요.”

“예? 무엇이라고요?”

남편의 말에 안해는 깜짝 놀라며 기겁을 쳤다.

“아니, 당신이 방금 무엇이라고 했죠?”

“여보,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아버님께 남겨두는 밥을 오늘 내가 불러니 저 아들에놈이 먹어버리는 게 아니겠소?”

“그래요?”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피골이 상접하신 아버님 어찌 오래 앉으실 수 있겠소? 그래서…”

“하긴 애녀석이 그런 줄을 몰랐군요. 하지만 없이 사는 게 죄지 어찌 철모르는 어린 것의 죄겠어요?”

“글쎄, 없이 사는 형편이기에 더 그렇다는 말이 아니겠소?”

“하지만 부모로 생겨 어찌 그런 전무후무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글쎄, 난들 어찌 내 자식이 귀하지 않겠소만 그러나 내 새끼보다 아버님이 더 중하단 말이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안해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귀가 멍해났다.

“흑흑, 난 몰라요.”

“여보! 우리 마음을 단단히 먹읍시다.”

“아, 아버님을 생각하니 별다른 수가 없군요.”

“그럼 여보, 어서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님이 모르시게 애를 돌쳐업고 나오오.”

남편의 말이 떨어지자 안해는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갔다.

세상 모르고 썩썩 잠을 자는 어린 것에게 다가가자 안해는 눈앞이 더 더욱 새까매났다.

안해는 가슴이 미여지는 대로 애를 얼른 돌쳐업었다.

곡괭이와 삽을 멘 남편과 어린 것을 업은 안해는 무서운 길을 떠났다. 휘영청 밝은 달이 하늘중천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 때 잠을 깬 어린 것이 어머니보고 물었다.

“엄마 어디로 가?”

“저기…”

대답하는 안해의 목소리는 몹시 떨렸다.

두 부부는 주적주적 뒤산으로 튕아올라갔다.

남편은 드디어 뒤산등허리 평퍼짐한 곳을 골라잡은 다음 곡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는 도라질 캐나?”

철부지 어린 것은 여전히 재잘재잘 제나름으로 묻는다.

“응, 도라질 캐지.”

안해는 차마 흙구멍이를 내려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대꾸한 뒤 돌아서서 흐느껴 울었다.

남편은 파고 또 팠다.

물론 제정신이 아니었다.

드디어 구멍이가 퍼그나 깊이 파졌다.

하긴 더 깊이 파는 동안이라고 어린 자식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보고 싶은 일념에서였다.

그래서 파고 또 팠다.

“아빠, 무슨 도라질 그렇게 캐나?”

“오, 이건 감자굴이다.”

“아니, 감자굴은 이리 먼산에 갔다 파나?”

“그럼, 올핸 감자를 많이 심었단다.”

“그래? 아 참 좋아!”

어린 것은 좋아라 박수까지 쳤다.

어느덧 자꾸 파다보니 사람 한키가 거의 되었다.

“조금 더 파자, 조금만 더!”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괭이를 또 탁 박았다.

바로 그 때, 괭이 끝에서 무엇인가 “땡!” 하고 이상한 쇠소리가 났다.

이상한 생각이 든 남편이 다시 곡괭이를 박으니 역시 “땡!” 하고 야무진 쇠소리가 또 났다.

남편은 삼 끝으로 흙을 살살 다시 더 파보았더니 둥그스름한 쇠덩이가 완전했다.

“뭣일가?”

무겁게 파내 들어올리니 그것은 월광에 번쩍번쩍 빛을 내뿜는 떡동아리 만큼 크고 둥근 큰 호박금이었다.

“아, 금덩이, 호박금덩이!”

“뭘라구요?”

“여보 이것 보오. 난데없는 호박금덩이가 나졌소!”

“어디 좀 봅시다. 아이 이게 꿈이예요? 생시예요?”

“그러게 말이요! 세상 이런 희한한 일이라구야!”

“아, 여보 참, 희한도 해요! 이런 호박덩이 금이 생흙 속에 묻혀있다니요, 암만 해도 하늘이 이 애를 살리려는가 봐요!”

일희일경한 안해의 부르짖음이다.

“웁소, 이 애를 파묻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우리더러 이 금을 팔아 아버님을 잘 봉양해가라는 천지신령의 높은 뜻인가 보오.”

“아, 웁야요. 어서 이 호박금을 갖다팔아 풍의족식 아버님을 잘 봉양하며 만세길이 마음껏 모셔가자요!”

“아무렴 더 이를 말이요.”

그들 부부는 달빛에 번뜩이는 금덩이를 서로 으스러져라 막 부둥켜안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로부터 그들 부부는 아버님을 더욱더 지성으로 모시며 근심걱정을 모르고 아주 잘 지냈다고 한다.